

중소기업, 티브이(TV) 광고로 판로 넓힌다

- 2026년 2차 방송광고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제작 지원 -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2026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2차 공개모집’을 통해 중소기업 2개사를 티브이(TV)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를 돕는 한편, 신규 광고 수요를 창출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차 공개모집에는 총 37개사의 중소기업이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매출액 규모, 방송광고 활용계획, 상품경쟁력 등의 종합 평가를 거쳐 최종 2개사가 선정됐다.

자세한 선정 결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방송광고 기획·제작·활용 등 방송광고 맞춤형 전문상담(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어 광고 경험이 부족한 기업도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3~4월 1차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23개사와 소상공인 114개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올해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총 139개사가 될 전망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광고는 기업과 제품을 알리고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이 방송광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아 (02-2110-1270)
		담당자	사무관	김정원 (02-2110-1274)

